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5호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페루:  
안데스산맥의 사제 -  
착한 목자의 모습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이러한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약속의 향구한 성취를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쁘게 체험하지만,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들을 매우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 계약의 백성인 교회가 천상 분향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오순절 이후, 이 거룩한 성사는 교회가 지내 온 세월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시간을 확고한 희망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교황직을 마무리하는 유언의 성격을 띤 이 회칙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비밀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더 이해하고 더 열정적으로 성체성사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존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시며 우리 구원,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로마 8,32-34)

교회의 이런 명확한 신앙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제들을 위한 우선적인 원조 방식으로 미사 예물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별 미사, 3일 미사(Tridua),

**“미사 예물은 많은 사제의 생활과 사목활동에 보탬이 되며,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자선금이 되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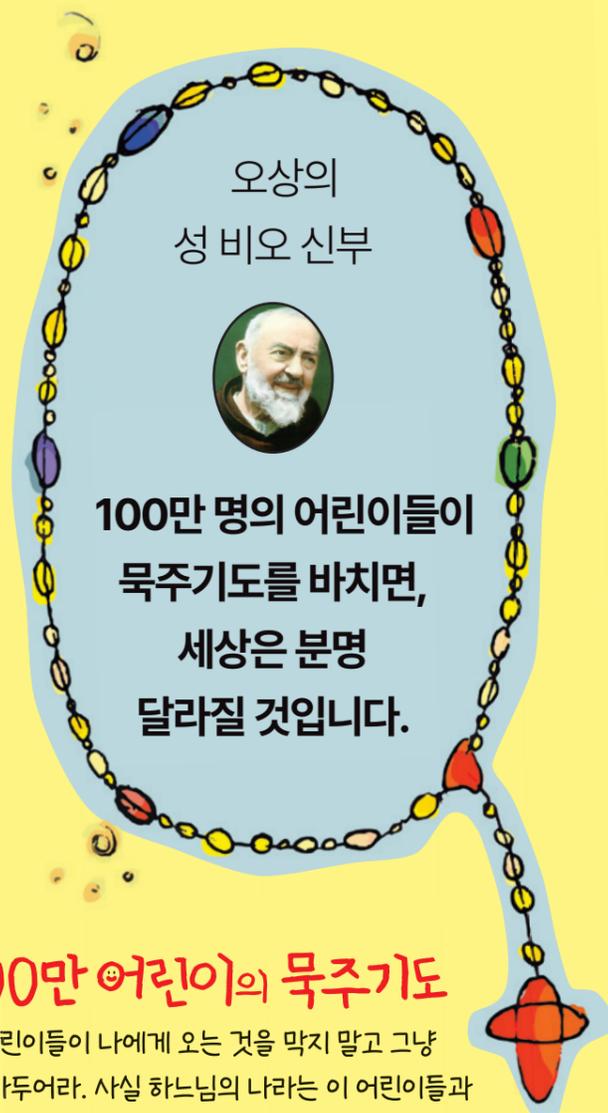
9일 미사(Novenas), 30일간 중단 없이 바치는 그레고리오(Gregorian) 미사 예물로 사제 약 40,0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미사 예물은 많은 사제의 생활과 사목활동에 보탬이 되며,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자선금이 되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 또는 특별한 지향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오는 미사 예물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최고의 형태로 실행되고, 동시에 하느님께는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우면서, 여러분의 지향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제들에게는 종종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사 지향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청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amer OP*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 10,14)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분의 발현에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어린이들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많은 은총을 받은 오상의 성 비오 신부도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열어서, 10월 18일에 많은 어린이가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어린이들의 동참을 독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기획해주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전 세계의 가장 먼 지역에서 사는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 헌신적인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이곳에서 우리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돌보고 있는 덕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평신도들 덕분에 신앙이 살아난 곳도 가보았습니다. 1991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소련에 속했던 키르기스스탄이 한 예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수천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스탈린에 의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추방되었고, 신앙생활도 금지당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출신이었지요. 그러나

고통받는 신자들의 신앙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키르기스스탄 직할 서리구의 교구장 서리이신 앤서니 코코란 SJ 신부님과 함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이들 중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당으로 사용되는 작은 집들에는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이 어머니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들의 모습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을 살면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 감사 편지

#### 유익한 협력

제 주교 서품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협력에 힘입어 이제 주교로서의 제 소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도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목자의 옷을 입도록 저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아프리카 복음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CN과 여러분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ACN과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자들과 후원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존 코로마 주교 시에라리온

미사 예물



볼리비아

## 세상 주변부와 그 끝자리에서의 선교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시나이산의 모세, 카르멜산의 엘리야 예언자, 타보르산의 예수가 가장 잘 알려진 예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특히 높은 산은 사제에게 직무 수행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볼리비아의 코로코로 성직 자치구의 본당들은 해발 5,000m의 안데스산맥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벨기에 정도 되지만, 담당 사제는 19명에 불과합니다. 본당마다 최대 120곳의 마을이 속해있기도 합니다. 마을 대부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제의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거리가 무척 먼데다 길은 위험하고, 기후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이지요. 동료 사제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제들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쿠



파타카마야 신자들의 영성체 모습

볼리비아: 높은 산에서 봉헌하는 미사

알 리마치 오르티즈 주교는 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합니다. 주교 자신도 성직 자치구의 주민 대부분이 속한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이어서 안데스산맥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교는 이 지역의 교회 생활을 강화하고 성소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사이비 신앙이 들어서기 마련이니까요.

**힘든 사목활동을 하는 사제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교님이 우리에게 미사 예물을 청해왔습니다. 신자들이 몹시 가난하다 보니 사제들을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알로타우-시데이아교구 사제들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 본당들은 종종 작은 섬에 있어서 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본당에서 사목활동을 했던 한 신부는 1년 전에 발을 절단해야 했고, 이 일로 그의 인생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현재 환경조건이 좀 나은 본섬에서 사목활동을 합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신부와 동료 사제들에게 항상 든든한 지원이 되어준 미사 예물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입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사제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올해에도 알로타우-시데이아의 사제 19명과 파푸아뉴기니의 다른 교구의 동료 사제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실겠습니까?**



← 복음을 경청하는 신자들  
→ 아주 외딴 곳에서도 그리스도는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잇힌 곳들



알바니아

## 작은 승리

알바니아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잔혹하게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도 남부 지역의 사제와 수도자들 대부분이 해외 출신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수도자들 5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성경 공부를 돕는 수녀

대부분의 수도회가 30년 이상을 알바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생의 대부분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수녀들의 사랑과 삶을 통한 증언은 이곳 사람들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많은 가족이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케냐 출신의 로이스 수녀는 멸시와 차별을 받는 로마족 가족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로이스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로마족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들여, 다른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은 로마족 아이들만 가르치게 되었죠. 2년이 지나 수녀들의 교육이 좋은 결실을 보이자, 다시 부모들이 자녀를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로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수녀들이 이룬 작은 승리인 셈이지요.



커다란 기쁨: 마을을 방문한 실비아 수녀와 리카르도 신부

**알바니아 남부에서 수녀 52명이 무보수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녀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1년 생활비로 총 37,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

## 정글 속 교회

가르멜 수도회 소속이자 가톨릭교회의 교회학자로 선포된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가장 먼 섬에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열렬히 소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에 속하면서도 지리적으로는 미얀마에 더 가까운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는 분명히 성녀 데레사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정글에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이 섬에 정착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먼 인도 본토에서 들여와야 해서 생활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을 짓는 것도 힘들지요. 우리에게 마을 세 곳의 성당을 완공하는 걸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니코바르 제도 북부의 한스푸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려면 언덕이 많은 지역의 정글을 네 시간 동안 헤쳐가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 시간 반을 모터보트로 간 후에 한 시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 건물의 교회만 있었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은 상설 건물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당을 포함, 다른 성당 두 곳을 완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 34,900,000원이 필요한 이 공사에 함께 해주실겠습니까?**



정글을 헤치며 먼 길을 오는 주교와 새로운 성당을 고대하는 신자들



# 지하디스트에게 납치되었지만, 하느님이 구해주시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마태 5,10) 신념을 지킨 무라드 대주교

“악시오스!(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분은 합당하시다!” - 동방 가톨릭-시리아 교회 홈스대교구의 교구장 착좌식 때 사제들이 새 대주교를 들어 올리는 동안, 시리아 가톨릭 주교단 의회 의장 이그나티우스 요셉 3세 총대주교는 이 말을 세 번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보다 더 합당한 목자가 있을까요? 5개월 동안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에게 잡혀 있었던 자크 무라드 신부는 올 3월에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밤, 복면한 무장단체가 시리아의 알 카리아타인에 있는 마르 엘리안 수도원에 침입해서 자크 신부를 납치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신부에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지만, 신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신부를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었으며,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모의 처형까지 연출해 보였습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크 무라드 신부가 회상합니다. “힘든 순간에 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 나는 복음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

도하여라.’(루카 6,27-28)” 신부의 말에 의하면 그의 ‘영적 무기’는 묵주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묵주기도를 바치며 침묵과 미소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داع시(IS) 테러민병대가 알 카리아타인 도시를 점령했고, 3세기 순교자인 에메사의 성 율리아노의 무덤을 포함한 묘지와 수도원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신자 250명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8월에 납치범들은 신부를 다른 인질범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들은 적어도 비밀리에 지하방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2015년 10월 10일, 자크 신부는 석방되었습니다. 신부는 감사해하며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과 성모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인 우리 ACN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명예로운 의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라드 대주교와 그가 속한 대교구의 사제 14명에게 미사 예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홈스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



새 대주교의 서품을 축하하는 사제들



알 카리아타인의 폐허가 된 수도원. 자크 무라드 신부가 납치된 곳.



# “성체성사는 나의 유일한 힘”

나이지리아 출신의 성령수도회 소속 사제인 케네스 이우나 신부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전통 유목

민 보라나 부족을 위해 10년째 선교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 부족에게는 전통 신앙에 따라 숭배하는 신에게 첫 아이를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유일하고 참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사제직의 가치와 본질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제인 내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내게 행복한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강한 긍정이지요.” 케네스 신부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렇긴 해도 선교사로서의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곳에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으니 때로 모든 게 힘들고 버겁게 여겨집니다. 그럴 때면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갑니다. 미사를 거행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게 성체성사는 몸 안의 피와도 같습니다. 성체성사가 없다면 가톨릭 사제도 없는 거지요. 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에너지로 넘치는 케네스 신부는 바로 이 성체성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제직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보라나 부족은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성체성사 안에서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모든 이를 사랑한다는 점에 특히 매력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거행하는 거룩한 미사가 로마나 세상 다른 곳에서도 거행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지요.”

이 지역의 젊은 교회는 활기차지만,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신부에게 미사 예물은 선교 사업을 지탱해나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미사 예물이 없다면 신부는 미망인, 고아, 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잃은 어르신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케네스 신부와 그의 동료 사제 11명에게 올해도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제들은 큰 사랑과 공경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프리카 사바나 유목민들 가운데서나 장엄한 대성당에서나 똑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에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티마의 성모 발  
현에서 성모님께서는 양을 치던 세 어린이에게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되 특별히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  
의 평화를 위해 이 기도를 바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목동들 가운데 한 명인 루시아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  
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복된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묵주기도에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 묵주기도를 바  
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묵주기  
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주님을 위로하고, 많은 영혼의 구

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10월 18일에 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어린이 단체, 학교, 기도 모  
임, 라디오와 텔레비전, 디지털 플랫폼, 소셜 미디어,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까지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모임을 조직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믿으며, 우리는 여러분과  
기도 안에서 일치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부는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국군중앙 주교좌성당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군중교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후원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  
특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